

하이델베르크, 500번째 수프라세터 공급



하이델베르크사는 최근 포르투갈 고객에게 500번째 수프라세터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프라세터74와 수프라세터105 모델은 전 세계 55개국에서 사용중이다. 수프라세터는 하이델베르크 자체 개발 제품으로 모듈 개념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비즈니스 모델에 정확하게 맞춰질 수 있다. 또한 판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언제라도 레이저 모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싱글이나 멀티 카세트 로더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하이델베르크사의 이미징 시스템을 총괄하는 안드레아스 포러씨는 “수프라세터의 성공적 판매는 하이델베르크가 CTP 전략에 있어 올바른 행보를 걷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인쇄 업체와 함께 기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모듈식 구조는 사용자에게 장기간 투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주고 요구에 정확히 맞춰 판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만로랜드, 세계신문총회 협찬



만로랜드는 지난 6월4일에서 7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59회 세계신문총회에 협찬사로 참여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대회동안 오픈하우스를 마련해 자사의 우수한 인쇄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이 오픈하우스는 만로랜드의 인쇄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모스크바의 Extra M와 PPK(Premier Polygraphic Kombinat)사가 대회의 대표 사절단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Extra M사는 신문 생산을 위한 GEOMAN 한 대와 상업용 인쇄를 위한 ROTOMAN 한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PPK사는 신문 인쇄와 선택적인 상업용 인쇄가 가능한 UNISSET 두 대, 상업용 운전 인쇄를 위한 LITHOMAN 한 대, 그리고 매업 오프셋 인쇄를 위한 ROLAND700 한 대를 가동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만로랜드는 대회동안 “신문과 그 디자인의 미래”라는 주제를 논의하는 회의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제품과 사업 모델, 가격 설정 방안 전략, 거의 혁명적인 신문 편성 과정의 변화, 그리고 뉴스 보도 및 미디어 사용의 환경 변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X-Rite, 아마지스 인수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빌에 소재한 X-Rite사는 최근 아마지스홀딩(Amazys Holding)AG사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아마지스는 그레탁맥베스(GretagMacbeth) 브랜드로 컬러 계측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화하는 업체이며, 이번 거래의 총 구매가격은 현금, 부채, X-Rite 주식을 포함해 약 2억8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건과 관련해 마이클 C. 페라라(Michael C. Ferrara) X-Rite 최고경영자는 “우리의 전문성, 재능, 기술 등이 혁신을 통해 글로벌 컬러 시장에서 영역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합회사는 X-Rite사로 불리게 되며 경영진은 기존 X-Rite의 경영진 6명과 아마지스의 경영진 3명 포함 총 9명으로 꾸러지게 된다.

아그파그래픽스, 터키 유력일간지 Hurriyet사에 프리프레스 솔루션 공급

터키 이스탄불에 위치한 도간 그룹은 최근 터키의 유력일간지 Hurriyet신문사가 아그파그래픽스의 CTP솔루션과 소프트웨어를 도입, 프리프레스 공정을 디지털화, 선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아그파그래픽스는 Hurriyet사와 8대의 폴라리스 XTV 바이올렛 레이저 CTP 및 해당 소프트웨어, 디지털 오프셋 판재, 현상시스템, 펀칭시스템, 벤딩시스템 등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Hurriyet사는 아그파그래픽스의 터키 판매공급원인 Reproset사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아그파 시스템을 도입해왔다. Hurriyet사는 현재도 이스탄불 공장에 7대의 폴라리스 시스템과 터키어 사용 독자가 널리 분포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장에 2대의 CTP시스템을 보유

하고 있다. 기존 시스템은 인쇄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이미징 시스템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최신 바이올렛 레이저로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며,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터키 전역의 Hurriyet 인쇄공장(Izmir, Ankara, Adana and Antalya)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Hurriyet사는 총 17대의 CTP시스템으로 연간 80만 m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코닥, 써멀 CTP 10주년 행사 개최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코닥은 써멀 CTP 기술 상용화 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써멀 CTP 기술은 코닥이 드루파 1995에서 코닥 다이렉트 이미지 써멀 플레이트와 크레오 써멀 3244 플레이트세터로 구성된 첫 번째 CTP시스템을 발표하면서 소개됐다. 이 시스템은 지금도 코닥

에 근무하고 있는 닐 할리(Neil Haley), 단 겔바트(Dan Gelbart) 박사에게 발명됐다. 써멀 CTP 기술은 1995년 말에 베타 테스트가 시작돼, Squarespot 이미징 기술의 1만dpi 레이저가 2400dpi 판재에 확실하게 전달되는 기술이 확립된 1996년 중반에 상용화됐다. 이후 10년에 걸쳐, 써멀 CTP 기술은 더욱 빨라진 속도와 정확도, 장비의 슬림화 등으로 대형 인쇄업체에서부터 중소형 업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보급됐다. 이날 행사에서 프랭크 로마노(Frank Romano) 프린트미디어스쿨, 로체스터기술연구원 명예교수는 "현재 CTP는 인쇄산업의 버팀목으로 프리프레스 및 전 공정의 완전 디지털화를 이룰 수 있는 워크플로를 이끌고 있으며 이는 CTP가 지난 10년간 만들어온 변화이다"고 말했다.



Celebrating 10 Years of
Breakthrough Technology
Kodak

선케미컬, 출판인크 가격 인상

미국 일리노이주 노스레이크 지역의 선케미컬사는 최근 모든 출판인크 가격을 9% 인상하는 한편, 에너지와 운송비용 인상을 충당하기 위한 별도의 부가금도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케미컬 북아메리카 사장이자 그룹 부사장이자 크리스 패릴리(Chris Parrilli)는 "원자재와 원료비용 상승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크 원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선케미컬은 여전히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최고의 품질과 제품 혁신, 고객서비

스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펀치그래픽스, 자이콘5000 렌탈 프로그램 발표

미국 일리노이주 이타스카 지역의 펀치그래픽스(Punch Graphix)사는 최근 북아메리카 지역에 자이콘5000 렌탈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펀치그래픽스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쇄업체가 디지털 인쇄에 진입하기 위한 장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자객 있는 고객들에게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월 임대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자이콘5000을 공급할 계획인데, 임대 기간을 어긴다고 위약금을 요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쇄업계에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장기간 계약을 이행한다면, 큰 지출 없이도 자이콘을 사용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4월 장비, 서비스 및 소모품 유지비용 등을 연구하는 캐슬론(Caslon)사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이콘 5000은 그래픽아트 품질로 월간 40만 페이지 이상을 출력하는 디지털 컬러 인쇄기 중에서 페이지당 비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그파그래픽스 발간 '인터페이스', 최고 잡지 대상 연이어 수상

아그파그래픽스가 9개 국어로 12만부를 발행, 전세계에 배포하는 잡지인 '인터페이스'가 미국 뉴욕시비즈니스마케팅협회로부터 B2B 비즈니스 마케팅·홍보 부문 대상인 '제3회 비즈니스마케팅협회상'을 수상했다.

인터페이스는 '뉴스레터' 분야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시상식은 파크애비뉴에 위치한 스칸디나비아하우스에서 '제40회 대상 시상식' 기간에 치러졌다. 이와 관련 아그파 측은 "이번의 수상은 2004년과 2005년 뉴저지주비즈니스마케팅 대상으로 연속 선정된 데 이어 3번째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인터페이스'의 우수성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고 수상의 의미를 전했다.

뉴욕시비즈니스마케팅협회의 네드 클라우센 사장은 "업계 유명 칼럼니스트, 마케팅 매니저, CEO들이 모여 대상, 은상, 동상을 선정하는데 올해는 미국 전역의 에이전시, 출판 및 관련업체 등이 경쟁 작품을 어느 때보다 많이 출품했다"고 밝혔다. 또한 뉴욕시비즈니스마케팅협회의 체릴 벤튼 이사는 "인터페이스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요소를 두루 갖춘 잘 만들어진 잡지이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인터페이스'는 전세계 인쇄 기술이나 시장 현황을 소개하고 고객들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유용한 정보와 소식, 기술경향, 마케팅 전략 등을 게재하는 잡지다.